

내일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관전 포인트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가 10일 선출된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시민공천배심원제 결과가 50%나 적용되는데 그동안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 강운태, 이용섭, 정동채에 비후보가 10%P 안팎의 지지율 차이를 보이며 치열한 경쟁전을 펼치고 있어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광주시장 후보 경선에서의 관전 포인트를 조명해본다.

① 당원 여론조사 1위가 공천될까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는 전 당원 여론조사(50%) 결과와 시민공천배심원제 투표 결과(50%)를 합산한 수치로 선정된다. 이에 따라 당원 전수 여론조사에서 1위 후보가 2·3위 후보와 큰 격차를 보이지 않는다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50% 반영된 서울 은평

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당원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뒤진 후보가 배심원들의 표를 많이 얻어 역전을 이룬바 있다. 하지만 400여명에 불과한 배심원들이 17만3천여명에 이르는 당원들의 표심을 뒤집는 결과가 도출될 경우, 정당원 여론조사 1위 후보의 반발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② 중앙배심원 표에 黨心 실리나

전체 배심원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앙당 선정 전문배심원들의 표심은 광주시장 경선 관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앙당에서 선정한 전문배심원들이 특정 후보에 표를 몰아줄 경우, 의외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은평구청장 및 음성군수 후보 경선에서는 중앙당이 선정한 전문 배심원의 참여율이 각각 90%에 이른 반면 시민 배심원 참여율은 25%, 40% 수준

에 그쳤으므로 전문 배심원의 표심이 후보 선정의 결정적 요인이 됐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은평구청장 후보 경선과 관련, 전문배심원 선정 및 표심에 중앙당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전문배심원에 참여하는 직능 및 시민사회단체의 명단을 보안상의 이유로 밝히지 않아 이러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③ 광주 시민배심원 참여율은

200명으로 구성된 광주시민 배심원들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가도 관심사다. 일단 광주시민의 정치적 역량 등을 고려할 때 시민 배심원의 참여율이 160명 이상, 70~8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민 배심원들의 참여율이 크게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중앙당 배심원의 경우 20여만명의 교통비와 심사비를 지급하는 반면, 광주시민 배심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도 시민배심원의 참여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시민 배심원들의 참여율이 60% 이하가 될 경우, 시민들의 참여가 최소화된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고된다.

④ 현장 토론회 영향력 얼마나

10일 김대중 센터에서 실시되는 토론회는 배심원들의 표심을 움직인다는 점에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선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은평구청장 및 음성군수 후보 경선에서도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보다는 자신의 비전을 조리있게 제시하는 후보에게 배심원들의 표심이 집중됐다는

평가다. 성급한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정책과 비전 제시 등을 통해 준비된 후보의 이미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토론회의 사회자나 패널들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질문을 하게 될 경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8일 오전 송재 서재필 선생 59주기 추모식 행사 후 참석자들이 기념공원에 세워진 애국지사 송재 서재필선생상을 둘러보며 선생의 숭고한 애국 애족 정신을 기렸다. /보성=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서재필 선생 59주기 추모식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평생을 바친 송재 서재필(1864~1951년) 선생 59주기 추모식이 8일 오전 11시 보성 서재필기념공원에서 봉헌됐다.

이날 추모식에는 유재철 광주일보 사장, 이상호 전 행정부 정책홍

보관리본부장, 최영관 전 광주YM-CA 이사장, 기념사업회 임원, 광복회 회원, 지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송재서재필기념사업회(이사장 김중재) 주관으로 열린 이날 추모

식은 헌화 및 분향, 다례, 추모기도·독송,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증서 추서 순으로 진행됐다.

장갑수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추모사를 통해 "서재필 선생은 나라사랑, 겨레사랑의 표본이자 항일독립운동사에 찬연한 업적을 남기신 민족의 지도자"라며 "이제 우리 후손들은 선생께서 염원했던 세계평화와 번영을 주도하는 선진일류국가, 더 큰 대한

민국을 만들어 가야 하는 소임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사)송재서재필기념사업회는 지난 1991년 광주일보사와 뜻있는 지역인사들을 중심으로 창립돼 생가 복원, 기념공원 조성, 독립문·동상 설립, 나라사랑 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펼쳐왔다. 문의 061-852-2815. /보성=김대성기자 bigkim@

암환자 5년 생존율 50%→56.6%

광주·전남 조기발견율 10년새 14% 늘어

광주·전남지역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이 지난 1998년 50.0%에서 2004년 56.6%로 매년 1.4%가량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전남지역암센터가 최근 공동으로 발간한 '전남대병원 병원암등록 보고서'(1998~2007년)에 따르면 이들 병원에서 치료받은 암환자의 생존율이 매년 괄목할 만큼 상승하고 있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7면> 보고서에 의하면 암환자의 '1년 생

존율'은 1998년 73.3%에서 2007년 79.5%(연평균 0.62% ↑)로 높아졌으며 '2년 생존율'도 같은 기간 61.4%에서 69.5%(0.81%)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전남대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을 찾은 5만 165명의 암환자와 1만8천205명의 암수술 환자를 등록·분석·추적해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지난 10년간 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에 등록된 암환자는 1998년 2천

715명에서 매년 12.7%씩 지속적으로 증가, 2007년 7천972명으로 총 5만165명에 달했다.

이들 환자의 조기진단율(1기 이하로 진단된 비율)은 1998년 27.05%에서 2007년 41.3%로 매년 4.8%씩 조기진단율이 증가했다. 이는 소비자들의 암 검진 확대와 첨단 진단장비의 도입에 의한 효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수술건수는 1998년 460건에서 2007년 3천535건으로 매년 25.4%씩 상승해 10년간 총 수술건수는 1

만8천205건이며 항암화학요법을 받은 건수는 1만8천144건이었다.

송은규 화순전남대병원장은 "국립대병원 최초로 국제의료기관인증기관 JCI의 인증을 받는 등 국제적인 안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진료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학교실업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기쁨으로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및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세계가스파·세기보청기

1388-8489-888-222-8110